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4일 (음력 7월 25일) 화요일

광주시 빅데이터 활용 청년일자리 해법 찾는다

광주고용청 · 광주전남벤처기업청 ·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와 공동

10월23일 DJ센터서 온라인 잡매칭 시스템 통한 일자리 박람회

광주시에 인공지능(AI) 빅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오는 10월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2018 광주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역량검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잡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 기반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고 구인기업이 필요한 직무역량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최적의 매칭결과를 구직자와 기업에 통보한다.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을 통한 경우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구직자에게 공평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도 스펙 위주의 선발

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인공지능매칭준과 취업컨설팅존, 4차 산업 체험존, 힐링존, 명사특강·이색직업특강 등도 마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박람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며 "일자리 mismatch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박람회에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귀환

비른미래당 손학규신임 당대표는 28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여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경기지사, 장관,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한 경륜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국민의당, 비른미래당까지 여러 정당에 몸담았던 그는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두 차례 대표를 역임했다. 이때문에 손 대표는 '철세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보수정당의 소장개혁파', '진보정당의 합리적민주주의자'로 불려왔다. 손 대표가 당권을 가버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47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난 손 대표는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유신 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인사들의 속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전남 2개 시·군 호우주의보...최대 80mm 비

광주기상청 "북상 제21호 태풍 기압골 영향 쥬 강수량 변동 가능성도"



광주와 전남지역에 오는 4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은 3일 오전 11시10분을 기해 여수와 고흥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흥 포두 52.5mm, 여수 산단 37mm, 광양 11mm, 완도 금일 6mm, 구례 피아골 5.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강수량은 30~80mm다. 이날 밤부터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북상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제비(JEBI)'가 기압골에 영향을 쥬 예상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한전공대 설립 위한

중간 용역 보고 개최

오는 10일 나주 한전 본사서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 공과대학(케피코텍·Kepco Tech) 설립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한전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남 나주 본사 1층 한빛홀에서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 용역사인 'A.T.Keamey(AT커니)' 측이 설립 타당성과 방향에 대해 분석한 중간 검토안을 발표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중간 용역 보고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한전공대 규모 축소와 설립 연기 가능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 축소·지연 논란은 지난 7월3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전 이사회실에서 주최한 한전공대 조기 설립 정책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전 측은 간담회 문건을 통해 송 의원에게 상반적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주주 반발'과 '설립비용 7000억원 부담', '지역대학 반발' 등을 조기설립을 가로 막는 애로사항으로 전달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건의 했다.

한전은 송 의원에게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초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조기 설립이 3~5년 늦춰지고, 설립규모도 당초 거론된 150만㎡에서 3분의 1 수준인 40만㎡로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디어 올드 보이 시대가 완성됐군

이해찬



손학규

나까지 끼어 들었나...



정동영/김병준

꼭 안 듣게 잘 해봅시다

'기억과 추모의 공간' 진도 팽목항 분향소 1329일 만에 철거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설치 1329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일 4·16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가족들은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입회면 팽목항에 설치됐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팽목항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9개월 만인 2015년 1월14일 오후 4시16분에 컨테이너 2개동 규모로 설치됐다.

당초 분향소가 설치된 공간은 전남도의 진도항 2단계 개발사업 구간으로 항만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발사업이 잠정중단됐으며, 4·16가족협의회와 진도군은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색이 끝날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인양이 끝나고 지난 4월16일 합동영결식까지 마무리된 만큼 협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분향소 내 희생자 사진·유품과 추모 상징물들은 경기 안산시 고잔동 4·16 기억저장소로 옮겨진다. 팽목항 내 '기다림의 등대'와 추모 조형물은 보존된다.

4·16가족협의회는 진도군과의 협의를 통



해 분향소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등거차도에 설치됐던 선체인양 감시·기록 초소도 지난 2일 철거됐다.

진도=조상용 기자



湖南新聞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 장흥군 군수 정종순
- 부군수 한동희
- 지방자치단체장회 장흥군지부 지부장 강현구
- 정기직 장흥군의회 정갑진 강경일
- 조합장 강경일
- 관공회 조합장 위효복
- 친박연합회 조합장 김외중
- 영산기독교회 조합장 김영천
- 안양회 조합장 김영중
- 연남회 조합장 이승주
- 장흥군추진위원회 조합장 문홍기
- 장흥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상수